

## 구성주의 요소를 활용한 현대 장신구 특성 연구

정지은<sup>1</sup>, 고승근<sup>2\*</sup>

<sup>1</sup>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디자인과 박사과정, <sup>2</sup>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교수

###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Jewelry Using Constructivist Elements

Ji-Eun Jeong<sup>1</sup>, Seung-Geun Ko<sup>2\*</sup>

<sup>1</sup>Ph.D. Course Department of Jewelry and Metal Craft, Wonkwa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Metal Jewellery Craft, Wonkwang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현대 장신구의 표현에 확대를 가져온 구성주의 특징을 살펴보고 구성주의가 장신구에 어떤 양상으로 활용되었는지 정리하였다. 구성주의의 새로운 재료에 대한 시도와 다양한 표현양식을 살펴보고 복합적인 조형의 표현 요소로 발전된 구성주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바우하우스에서 확장되기 시작한 구성주의의 특징을 재료와 공간 구성을 통한 표현의 양상으로 정리하였으며, 장신구 작가들의 다양한 재료의 표현 방법과 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구성주의는 장신구의 조형성에 건축적 패턴의 구성, 공간의 시각화, 타 재료의 사용의 통한 입체적 표현과 심층적 개념의 조형 양상으로 확장을 보여주었으며 현대 장신구 디자인의 기초적 조형요소의 표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구성주의의 재료적 조형요소에만 국한되어 디자인의 확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주의의 이념이 표현된 다양한 장신구 디자인의 확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라슬로 모호이 너지,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현대 장신구, 마가렛 드 파타

**Abstract** This thesi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vism that brought about expanded expression of modern jewelry, and also organized how the constructivism was utilized for jewel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ttempts of new materials based on constructivism and various expression styles, and also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constructivism developed into an element of complex formative expression. For this, this study organized the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vism that was initially expanded from Bau Haus in the aspect of expression through the composition of material and space, and also analyzed the jewelry artists' methods and attempts to express various materials. As a result, the constructivism showed the expansion of the formativeness of jewelry in the formative aspect of steric expression and in-depth concept through the composition of architectural pattern, visualization of space, and use of other materials, which becomes an example of basic formative element of modern jewelry design. However, it is limited to the material formative element of constructivism, so the expansion of design would be needed. Thus, there should be more researches on the expansion of various jewelry designs that could express the philosophy of constructivism.

**Key Words** : Laszlo Moholy Nagi, Constructivism, Bauhaus, Modern Jewelry, Margaret de Fatta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 Seung-Geun Ko(kogeun@wku.ac.kr)

Received August 28,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27,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 1. 서론

과거의 전통적 장신구는 부의 상징과 인체를 치장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현대의 장신구는 단순히 상징적, 치장의 의미만 갖지는 않는다. 현대 장신구는 사회적 이념과 산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소재의 탄생, 그리고 디자인 교육을 받은 작가들에 의해 장신구의 의미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디자인 조형 학교인 독일의 바우하우스는 체계적인 디자인 교육으로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재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분석을 통해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어떠한 형태를 구현하는 구성적 표현 방법에 대해 배우는 예비과정 교육은 디자인의 초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의 창작 능력에 따른 재료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미학적, 조형적 가치를 전달하는 개인의 미적 사고를 표출하게 하였다. 특히, 바우하우스의 구성주의 이념은 라슬로 모호이 너지(László Moholy-Nagy)에 의해 확장되었다. 구성의 표현 교육 방식은 예술에 대한 그의 신념에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교육을 받은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구성의 요소는 필요에 의해 현대 장신구의 중요한 조형 요소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바우하우스의 구성주의는 근대 장신구가 현대 장신구로 나아가게 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킨 요소로서 과거의 장신구가 가지고 있던 장식적 기능을 넘어서 확장적 개념으로 나아가게 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성주의적 요소들이 혼합된 현대 장신구에 나타난 특성과 표현적 요소를 연구하여 장신구에 나타난 구성주의의 의미와 형식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구성주의의 조형요소 특징을 그의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바우하우스 교육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에게 나타나는 구성적 디자인 요소를 사례분석하여 구성주의 특징적인 조형 요소를 알아봄으로써, 구성주의 조형요소가 현대 장신구 성장에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실제로 미학적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주의 이념 성장에서 나타나는 라슬로 모호이 너지의 예술적 성향과 그의 작품에서 나타난 구성주의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라슬로 모호이 너지의 작품에 드러난 구성주의 조형 요소의 특징을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셋째, 현대 장신구에 드러난 구성주의 요소를 재료적, 공간적 특성으로 분석하여 현대 장신구와 구성주의의 미학적 연계성을 알아보고 결론, 제언한다.

## 2. 구성주의 개념

### 2.1 라슬로 모호이 너지와 구성주의

라슬로 모호이 너지는 구성주의 교육에 촉매 역할을 한 선구자였다. 그의 교육 목표는 인간 지각 능력의 총체적 교육을 통해, 모든 미술 장르를 연결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재료의 성질에 대한 탐구와 균형적 구성을 통한 새로운 조형 예술로 접근하기 위해 창의적인 실험으로 교육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현대적인 조형성과 기능이 고려된 실용주의 제품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라슬로 모호이 너지의 구성주의에 대한 이념은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미술과 구성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타를린에 의해 성립된 러시아 구성주의는 그가 말한 '재료에 충실한'(Truth to Materials)에 입각하여 물질을 직접 화면에 쌓아 올리는 새로운 개념의 장르로 제시되었다[1]. 그와 동시에 러시아 구성주의를 이끌었던 나움 가보(Naum Gabo)는 독일 베를린에서 라슬로 모호이 너지와 인연을 맺는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라슬로 모호이 너지는 시대상이 반영된 새로운 구성주의 이념을 펼치게 된다. 그의 작품은 전통 재료에서 탈피해 진보된 기술 재료를 추구하였고 소재가 작품 형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이 작품 제작에 활용되었으며 근대의 산업재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금속 형상이 나타내는 재료적 구성과 형상이 빛을 통해 벽에 그려진 그림자의 움직임을 활용한 공간 표현이 특징이다. 그의 회화 속에서 나타난 구성주의는 순수 조형 요소를 기본으로 작업하며 양감보다 공간에 집중되었다. 배열, 중첩, 다른 재료의 합과 같은 요소를 통해 공간에 대한 해석적 요소를 작품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진을 활용한 몽타주나, 콜라주, 시점의 변화는 공간적 구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활용되었다.

## 2.2 구성주의 조형 특성

구성주의는 한 가지 또는 여러 종류의 금속, 유리, 나무,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양감보다는 공간이 중심이 되는 조각을 가리킨다[1]. 이는 평면 속에 존재 하던 예술을 가공, 추상이 아닌 실재의 형상으로 제시 하고 표현하게 하고 다양한 재료의 성질을 구성에 이용 하여 재료의 본질 외의 이면의 특성을 창작능력에 보여 준다. 나옴 가보의 작업은 평면의 나무 조각들이 교차하여 입체로 구성된 형태와 입체를 구성하며 생긴 빈 공간을 조형의 요소로 수용하여 3차원의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1920년대 등장한 플라스틱 재료를 활용하여 투명한 면 으로 입체를 구성하여 보이지 않는 공간을 드러나게 표현 하여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을 관념적으로 구성하였다. 교차 원리를 이용한 공간의 시각화를 보여 주는 구성주의의 대표적 특징이다[2]. 빌헬름 바겐펠트(Wilhelm Wagenfeld)의 WG24 스탠드 조명은 그가 바우하우스 재학 시절 모홀리 나기의 수업 과제로 디자인 하였다. 스탠드 조명은 목재가 일반적이었던 시기에 매우 획기적인 유리와 철을 재료로 사용하여 주목받았다. 절제된 조형 요소의 구성으로 우아하면서도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구성주의 디자인의 정석으로 불린다. 간결하고 절제된 디자인 요소와 다양한 재료 혼합이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마리안네 브란트(Marianne Brandt)의 차 주전자는 그녀의 스승인 모호이 너지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준다. 반원형의 손잡이와 십자 형태 다리, 주전자 뚜껑과 반구 형태의 몸통은 그의 평면회화 구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주전자의 몸통과 손잡이, 주전자 다리 사이에서 보이는 여백의 공간과 간결하고 심플한 형태의 기초 조형 요소가 조화롭게 구성된 작품이다. 금속의 딱딱하고 차가운 재료의 특성을 흑단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 으로 중화하여 표현하였다[3].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는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단순함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엮어 결합한 바실리 체어를 디자인하였다. 예술과 기술이 조화로운 이 의자는 강철 튜브, 합판, 산업 유리 등을 활용하여 골격을 구성하였다. 파이프의 휘어 짐을 통해 의자 사방 면에서 보이는 공간의 표현이 특징 이다. 이처럼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은 구성주의의 특징은 다양한 물성을 활용한 실재적 표현과 기초조형 요소인 점, 선, 면을 조립하여 활용한 공간의 구성이다.

이는 현대적 표현방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며 추상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진 진전된 표현 형태라 볼 수 있다[3].

## 3. 현대 장신구에서 구성주의 요소의 활용

바우하우스 금속공방은 다양한 재료의 물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금속과 재료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는 작가들로 하여금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표현법 개발에 눈 뜨게 하였고 재료의 구성에 의한 중첩과 시점의 변화, 재료의 다양한 텍스처 표현으로 공간을 조형 요소로 활용 가능하게 하였다. 근대 장신구가 현대 조형 요소를 도입, 탐색하게 된 후 재료에 의한 새로운 조형 요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라슬로 모호이 너지는 미국으로 넘어가 뉴 바우하우스를 설립해 구성 주의 교육을 이어나갔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현대 장신구가 시작되었으며 구성주의 교육은 이를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 3.1 재료의 물성 활용

미국 장신구 작가 마가렛 드 파타(Margaret De Patta)는 스승 라슬로 모호이 너지에 의해 바우하우스 구성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그녀의 작업은 재료의 물성을 활용한 빛의 움직임과 장신구에 부여된 구조적 형태의 반사를 통해 공간성을 보여준다. 수정이나 광학유리 같은 독특한 광학을 보여주는 재료를 활용하여, 장신구의 프레임이 재료에 투영되어 보이는 확장된 구조적 형태가 특징이다. 일반적인 보석의 형태를 거부하고 독특한 커팅으로 빛과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는 모호이 너지의 포토그램 기법에 나타난 빛의 구성과 중첩에 의한 공간감 특징에서 영향을 받았다[4].

독일에서 체인, 의상 보석 공장은 운영한 야콥 벵겔(Jakob Bengel)은 바우하우스와 아르데코의 영향을 받아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그의 장신구의 형태는 단순한 기하 도형을 활용한 대칭과 반복 구조가 교차하며 미학적 움직임을 보여준다. 또한 베이클라이트 합성수지, 크롬 도금 등과 같은 새로운 재료를 실험하여 건축적 요소가 돋보이는 패턴의 요소를 장신구에 활용하였다.

Table 1의 Brickwork는 벽돌을 쌓는 방식으로 연결 된 메쉬가 서로 결합되며 일정한 패턴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색깔의 블록체인은 기하학, 삼각법, 기계의 미학에서 빌린 요소들로 구성주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벽돌 작업 시리즈 체인들은 시대적 감성과 실용적 디자인으로 당시 큰 사랑을 받았다.

나움 슬루츠키(Naum Slutzky)는 1919년부터 1924년까지 바우하우스 금속공방에서 교육 활동하였다. 러시아 구성주의에 영향을 받은 나움 슬루츠키는 라슬로 모호이너지 보다 앞서 구성주의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는 기하학적 형태를 기본으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최솟값으로 축소된 기하학적 형태는 단순하고 원소적인 우아함을 보여준다. 표면의 질감과 크롬 도금한 황동, 은, 강철, 단색 에나멜 등을 사용하여 실험적이고 간결한 표현이 특징이다. 나움 슬루츠키의 산업재료를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장신구는 당대 장신구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5].

이레나 브리너(Irena Brynner)의 장신구는 물체를 절단, 분해하거나 절단되지 않은 돌과 광물, 고대 구슬 등 단편적인 물체를 다른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속 예술 조합에서 만난 메리 렌크와 마가렛 드 파타의 영향으로 그들을 만난 이후 이레나 브리너는 시카고의 뉴 바우하우스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녀의 재료에 대한 활용법은 보석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표현으로 나타났고 후에 모더니즘에 영향을 주게 된다.

### 3.2 공간적 구성

조각에서 시작된 구성주의 표현은 점진적으로 장신구에 흡수되기 시작했다. 마가렛 드 파타의 장신구는 ‘입을 수 있는 조각품’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신구에 공간구조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보이는 시점에 따라 다른 구성을 보여준다. 신체에 착용될 수 있는 제한된 크기 안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를 나열하여 평형감과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배열의 교차와 간격 차이를 둠으로써 긴장감을 나타내는 공간 미학을 보여주기도 한다[4].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의 영향을 받은 아트 스미스(Art Smith) 장신구는 웅장하고 감각적인 미학적 움직임을 갖는다. 면과 선의 구성이 마치 하나의 작은 조각처럼 보인다. 그는 몸과 만난 장신구가 그 안에서 새로운 공간을 이루고 하나로 융합되었을 때 완성된 형태이며 몸도 디자인의 한 구성 요소로 선, 형태, 색과 마찬가지로 함께 작업해야 할 소재로 인식하였다. 공간에 대한 작가의 이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성이 인상적이다. 아트 스미스는 마가렛 드 파타와 1940년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모더니즘을 선도하였다.

베티 쿡(Betty Cooke)은 미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이다. 바우하우스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그녀의 장신구는 간결하고 순수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의 작품은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적 나열과 꾸밈없는 장식 표현은 여백의 공간을 과감하고 명확하게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강한 구성 요소의 감각은 모든 작품의 기초를 이루며 "원과 선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그녀의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금속 튜브, 에나멜, 나무, 보석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웨어러블하고 미니멀한 조각 형태를 보여준다.

메리 렌크(Merry Renk)는 미국 시카고의 라슬로

Table 1. Jewelry works using various materials & Ingredient

| Artist                    | Works  |   |   |
|---------------------------|--|---|---|
| Margaret De Patta[6]      |  |   |   |
|                           | Pendant 1948   | Ring 1942   | Pendant 1959  |
|                           | Jakob Bengel[7,8]  |  |  |
| Halsschmuck ca. 1930-1939 |  | Halsrief 1930'S   | Brickwork Bracelet 1931   |
| Naum Slutzky[9,10]        |  |  |  |
|                           | Necklace 1930  | Bracelet 1929   | enamel ring c.1965  |
|                           | Irena Brynner[11]  |  |  |
| Earrings 1950-55          |  | Necklace 1963   | Necklace 1950-55  |

모호이 너지가 설립한 디자인 연구소에서 뉴 바우하우스를 경험한다. 얇은 금속판을 결합한 구조적 설계와 작은 보석을 사용한 섬세한 표현이 특징이다. Table 2의 Hairband는 얇은 금속을 접어 제작하였으며, 접어진 금속과 안쪽의 접힌 금속과의 대비를 보여주며 공간의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평면의 모양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펼쳐 3차원 입체공간을 구성한 Wedding Crown는 쏟아 오르는 듯한 시선의 이동과 왕관 윗부분에 작은 보석들이 공간의 시점을 강조, 부각하고 있다.

활용하여 표현되었다. 세부적으로 재료의 반사 성질의 활용, 움직임에 활용하여 장신구로 표현하였다.

둘째, 구성주의의 구조를 활용한 장신구의 시각화이다. 가장 대표적인 구조의 시각화 방법은 건축적 패턴을 확장된 구조적 형태로 이후 더 발전하여 삼각법, 기계와의 융합된 형태로 기하학의 축소판으로 장신구에 표현된다. 최솟값과 단순화적 표현과 교차 원리를 통한 공간의 시각화는 구조적 표현의 대표적인 구성주의적 특징이다. 또한 기초조형요소인 점, 선, 면을 활용한 기능적 구조의 표현도 장신구 디자인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2. Jewelry works using spatial composition

| Artist                    | Works   |   |   |
|---------------------------|---|---|---|
| Margaret De Patta[12]     |  |    |    |
|                           | Ring, 1930  | Ring, ca. 1955  | Ring, ca. 1947  |
|                           | Art Smith[13]   |    |    |
| Patina necklace, ca. 1959 |   | Modern cuff, ca. 1948   | Linked oval necklace, 1974  |
| Betty Cooke[14]           |   |  |  |
|                           | necklace, ca. 1955  | Pin, ca. 1955-65  | Ring, 1950-65   |
|                           | Merry Renk[15,16]   |  |  |
| Folded Hairband 1954      |   | White Cloud Wedding Crown 1968  | Opal Branch necklaces 1963  |

#### 4. 논의

구성주의 요소가 활용된 현대 장신구 조형적 특징을 정리하면 크게 재료와 구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료적 특징은 장신구의 주 재료인 금속과 타 재료와의 결합으로 타 재료는 주로 유리, 에나멜, 강철 등 질감적 재료와 빛, 공간감, 색 등의 무기적 재료를

#### 5. 결론

구성주의는 현대 장신구가 파생되기 시작한 중요한 예술사조로서 산업혁명과 더불어 나타난 다양한 재료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 사고의 전환은 금속만으로 표현된 장신구를 벗어나 이타적인 새로운 표현의 발전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즉, 기존에 장신구에 통용된 재료의 의미를 단절시키고 작가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아 새롭게 표현되었다. 이를 알아보기 구성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장신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조형적 특징을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주의는 작가의 조형에 대한 재료의 선택과 관념을 확장시켰다. 재료의 가능성과 창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주었으며, 작업에 대한 모든 의미 부여는 작가의 선택과 스스로의 정체성과 이념을 담아, 표현의 수단으로 발전되게 하였다.

둘째 공간에 대한 구성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조각에서의 구성적 표현이 장신구와 접목하게 되면서 나열식 구조와 결합, 반복적 요소를 통해 공간에 대한 구성적 표현이 발전하였다. 재료에 대한 다양성과 공간에 대한 개념은 장신구의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과 개념적 표현을 보여주었다. 발전된 구성주의 개념은 아르데코, 모더니즘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 주얼리의 주요 특징으로 나타난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이때부터 확대되었으며 이는 미래적 표현 방식에 걸맞은 표현의 시작을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 주얼리의 특성 기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조형 방향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구성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장신구에 활용된 조형적

특징을 재료와 구조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현대 주얼리의 구성주의 활용은 예술사조의 이념이 표현되기 보다는 장식적 특징 즉, 시각적 표현에만 국한된 재료적 표현의 한계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성주의가 시작된 사회적 배경과 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조형요소로서 장신구에 표현한 다양한 해석적 표현을 담은 장신구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monthlyart. (1999). *World art term dictionary*. Korea.: monthlyart

[2] N. J. Yun. (2009). Art, Science, Technology the Works of Naum Gabo and László Moholy-Nagy. Center for Art Studies, Korea. *Art History Forum (29)*, 297-326.

[3] Hajo Duchting. (2007). *How do you understand? Bauhaus*. Seoul : Misulmunhwa

[4] H. Y. Chung & B. H. Koh. (201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rgaret de Pata Jewelry. *The Korea Society Of Art & Design, 22(1)*, 179-191.

[5] K. S. Lee. (2005). A Study on Jewelry of Naum Slutzky.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6(4)*, 75-83.

[6] Cathleen McCarthy. (2013). *Women who paved the way: Margaret De Patta*. The jewelry loupe. <https://thejewelryloupe.com/margaret-de-patta-pace-light-wearable-sculpture/>

[7] Artnet Worldwide Corporation. (2021). *Artnet*. <http://www.artnet.com/artists/jakob-bengel/>

[8] DESIGN20.eu. (2021). *Design20*. <https://en.design20.eu/objects/bracelet-brickwork-jakob-bengel-idar-oberstein-germany/>

[9] Clare Phillips. (2000). *Jewels and Jewellery*. UK : V&A.

[10] Monika Rudolf. (1994). *Naum Slutzky. Meister am Bauhaus, Goldschmied und designer*. Germany : ARNOLDSCHE

[11] Smithsonian Design Museum. (2021). *cooperhewitt*. <http://cprhw.tt/p/2AtYK/>

[12] Artnet Worldwide Corporation. (2021). *Artnet*. <http://www.artnet.com/artists/margaret-de-patta/3>

[13] The Brooklyn Museum. (2021). *Brooklynmuseum*. <https://www.brooklynmuseum.org/search?q=art+smith#gsc.tab=0&gsc.q=art%20smith&gsc.page=2>

[14] Jeannine Falino, Hughes, Eleanor. (2020). *The Ci*

rcle and the Line The Jewelry of Betty Cooke. UK : Giles

[15]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2021). LACMA. <https://collections.lacma.org/node/1209473>

[16] The Museum of Arts and Design. (2021). madmuseum. <http://collections.madmuseum.org/search/Merry%2520Renk>

정 지 은(Ji-Eun Jeong)

[정회원]



- 2014년 2월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 공예과 (미술학사)
- 2017년 2월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 디자인학과 (귀금속디자인학석사)
- 2019년 2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디자인, 장신구  
· E-Mail : jjeun\_jeong08@naver.com

고 승 근(Seung-Geun Ko)

[정회원]



- 1984년 2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과 (미술학 석사)
- 2006년 2월 : 동신대학교 보석공학과 (공학박사)
- 1991년 2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교수

· 관심분야 : 디자인, 보석학  
· E-Mail : kogeun@wku.ac.k